24과 하늘에서 내려 온 만나 - 김성태 목사

네 오늘 22과 하늘로부터 온 양식, 만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좋겠구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어 오시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요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Y Jehová dijo a Moisés: He aquí yo os haré llover pan del cielo; y el pueblo saldrá, y recogerá diariamente la porción de un día, para que yo lo pruebe si anda en mi ley, o no.

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때에 그 앞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원망했잖아요?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15장에

그리고 마라의 쓴 물 때문에 또 원망을 했고 그러던차에 요번에는 음식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왜? 왜 이런 기회를 주시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한히 내리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걷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억지로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죠?

고통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때까지 놔두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렇게 놔두신 것은 가나한 일곱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그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놨던 거잖아요?

초월통치하신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때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충만해서 멸하여, 멸해야 하는 때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를 그 때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위에 3절 한 번, 성경 3절 한 번 보시면요 16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y les decían los hijos de Israel: Ojalá hubiéramos muerto por mano de Jehová en la tierra de Egipto, cuando nos sentábamos a las ollas de carne, cuando comíamos pan hasta saciarnos; pues nos habéis sacado a este desierto para matar de hambre a toda esta multitud

사실은 이러지는 않았거거든요.

노예생활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는데, 근데 이제 자기네들의 원망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유를 갖다가 붙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

전도서 7장 보시면은요

전도서 7장 10절에

전도서 7장 10절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Nunca digas: ¿Cuál es la causa de que los tiempos pasados fueron mejores que estos? Porque nunca de esto preguntarás con sabiduría

그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망을 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래요?

보따리 달래요 보따리

그 상황이랑 비슷하죠?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냈더니 이제는 불평, 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리신 은혜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2과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5~6학년, 3~4학년, 1~2학년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 보겠습니다.

1번 만나

광야생활로 음식물이 부족하여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비같이 서리같이 밤에 내린 양식이었다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 온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14절 보 그 밑에요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Y cuando el rocío cesó de descender, he aquí sobre la faz del desierto una cosa menuda, redonda, menuda como una escarcha sobre la tierra

(민 11:9)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Y cuando descendía el rocío sobre el campamento de noche, el maná descendía sobre él.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깟씨 같고도 하얀 색깔에, 모양은 진주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나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맛이 꿀 섞은 과자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질리기도 하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꿀, 기름 섞은 것은 느끼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허구한 날 먹으려니 얼마나 느끼하겠어요?

안 먹어 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 만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16장 16절부터 보면

매일 한 사람이 아침마다 한 오멜 씩 모으도록 명했다라는 겁니다.

한 오멜

그래서 이렇게 양을 정해주시고 하루에 먹을 분량만큼만 가져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보존되는 것은 금지되었다.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누구에게나 과부족이 없었고

18절 말씀인데요, 성경 18절에 보면

(출16:18)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y lo medían por gomer, y no sobró al que había recogido mucho, ni faltó al que había recogido poco; cada uno recogió conforme a lo que había de comer.

저는 처음에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오멜 씩 퍼 오면 적게 푸든 많이 푸든 오다보면 다 똑같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라 각자 나가서 다 퍼 와가지고 한 데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똑같이 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각자 나가 따로 따로 퍼왔는데 오다가 바뀐 게 아니라, 양이 맞춰진 게 아니라 다 가져와서 한 데 모아 놓고 나눠 가져간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기 때문에 보관이 안되었다.

그러나 제 6일에는 다음날 안식을 대비하여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한 사람에 두 오멜씩 거두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은 제7일까지 보존되었다.

만나는 광야 생활 중에 계속 40년간이나 주어졌고, 이것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그 내리는 것이 곧 그쳤다

오래 오래

광야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비유하잖아요

신앙생활 광야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내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적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닭, 계란을 만들어 낸다고 해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1년 365일 보면은요, 기적인데 기적같이 안 보일 거예요

또 낳았네? 또 낳았네? 뭐 그런거죠.

천지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인데 우리가 매일 매일 접하니까 기적인지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매일 내렸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한테 베풀어주신 은혜가 매일 매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지 않고 놓으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매일 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잡혀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그게 현명하죠?

왜? 시험에 들면 다 빠져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다 빠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이 합당하죠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보세요

2번 만나를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다.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y a la mañana veréis la gloria de Jehová; porque él ha oído vuestras murmuraciones contra Jehová; porque nosotros, ¿qué somos, para que vosotros murmuréis contra nosotros?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매일 매일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 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Así comieron los hijos de Israel maná cuarenta años, hasta que llegaron a tierra habitada; maná comieron hasta que llegaron a los límites de la tierra de Canaán.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면

사십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릍지 아니하였사오며

Los sustentaste cuarenta años en el desierto; de ninguna cosa tuvieron necesidad; sus vestidos no se envejecieron, ni se hincharon sus pies.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신명기 그 위에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사십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Y yo os he traído cuarenta años en el desierto; vuestros vestidos no se han envejecido sobre vosotros, ni vuestro calzado se ha envejecido sobre vuestro pie.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십년 동안에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옷이 해어지지 않고 신발이 해어지지 않았을까?

답 아시죠?

하나님께서 업었든지 안았든지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발이 해어지지 않고 옷이 해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푸념하죠.

그죠?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놓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럼 과연 내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은 주님의 편재함과 임재함을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태양이 안 떴다고 안 보인다고 태양이 안 뜬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태양이 항상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말씀으로 사는 지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16장 4절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면은 서로 가져가려고 막 했을 것 아닙니까?

음식은 없는데 내일 주시겠다는 약속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만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가져가라

그래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준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한테도 같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3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요? 망각했다고 했습니다.

잊어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먹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렸거든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Y toda la congregación de los hijos de Israel murmuró contra Moisés y Aarón en el desierto;

(3)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y les decían los hijos de Israel: Ojalá hubiéramos muerto por mano de Jehová en la tierra de Egipto, cuando nos sentábamos a las ollas de carne, cuando comíamos pan hasta saciarnos; pues nos habéis sacado a este desierto para matar de hambre a toda esta multitud.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거잖아요? 모세를? 그런데 지금 바꿔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죠.

그래서 만나를 애굽의 식량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돼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Y la gente extranjera que se mezcló con ellos tuvo un vivo deseo, y los hijos de Israel también volvieron a llorar y dijeron: !!Quién nos diera a comer carne!

(5)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Nos acordamos del pescado que comíamos en Egipto de balde, de los pepinos, los melones, los puerros, las cebollas y los ajos;

(6)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하니
y ahora nuestra alma se seca; pues nada sino este maná ven nuestros ojos.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은 게 더 좋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보다 육신적인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너무나 큰 실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는데 그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면서 그것보다는 옛날에 종살이 할 때를 더 좋았다고 하는 것 보면 그 만큼 마음이 강팍해 진거죠

그래서 이거는 육신적으로 치우칠 까봐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민수기 11장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 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sino hasta un mes entero, hasta que os salga por las narices, y la aborrezcáis, por cuanto menospreciasteis a Jehová que está en medio de vosotros, y llorasteis delante de él, diciendo: ¿Para qué salimos acá de Egipto?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이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간 주시잖아요?

한 번 먹어봐라 하고 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 육신, 육신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라고 하신 것이 그게 현명한 지혜예요. 그게.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마음대로 퍼가라 그랬다면은 볼만했을 것 같아요. 만나.

그죠?

실제로 우리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침마다 6시에 나가면은 만원짜리가 떨어진다 하루에.

하늘에서 쏟아진다

그런데 그날 쓸 것만 가져가라 나머지는 다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어요?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막 떨어져 돈이 떨어지는데 10만원씩만 가져가라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적어도 10만원보다는 더 많은데???(20:42 발음이 너무 뭉개져서 안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6일째에는 20만원 가져가라 내일 쓸 거 없으니까

어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시는 거였거든요

은혜를 주시되 제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하는지 아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인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덧뿌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소동케하고 나가게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요동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잖아요?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뱀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중에 원망하는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두 분 몇 분 때문에 주위에 다 요동이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역교회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물론 거짓교리나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생활 중에 신앙생활 중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불만이나 불만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말씀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하던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게 참 그게 참 편하다 싶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 평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거 서두 빼버리고 바로 본론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 아뢰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한 번 해 보세요

여튼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알, 알지만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아빠 나가는데, 존경하는 아버님 다녀오십시오 뭐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것 보다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솔직한 심정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격식을 차리고 하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겠다 싶고요

그런게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큰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잠언 19장 3절에 보면 밑에 보세요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La insensatez del hombre tuerce su camino,
Y luego contra Jehová se irrita su corazón.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9)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Hospedaos los unos a los otros sin murmuraciones.

(빌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Haced todo sin murmuraciones y contiendas,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Hermanos, no os quejéis unos contra otros, para que no seáis condenados; he aquí, el juez está delante de la puerta.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서운한 게 있으면, “자매 형제 나 사실은 이러 이랬었어. 되게 불편했거든?”

풀면 되는 데 그것을 쌓고 쌓잖아요?

나중에 더 커지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은 게 결국은 나왔잖아요

김일병

깠잖아요 수류탄

그렇잖아요?

말로 인해서 속에 쌓은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폭발해 버렸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되어 질 일중에 하나거든요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 같아요.

하나하나 서운한 게 있으면 그런 거 그 때 그 때 푸는 게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의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다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돼 있는데

만나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중한 양식이었다.

이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Yo soy el pan vivo que descendió del cielo; si alguno comiere de este pan, vivirá para siempre; y el pan que yo daré es mi carne, la cual yo daré por la vida del mundo.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와 우리 영의 참된 양식이 되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기록된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Nuestros padres comieron el maná en el desierto, como está escrito: Pan del cielo les dio a comer.

3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Jesús les dijo: Yo soy el pan de vida; el que a mí viene, nunca tendrá hambre; y el que en mí cree, no tendrá sed jamás.

(요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Yo soy el pan de vida.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양식은 곧 예수님을 의미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식물과 음식은 땅에서 거두어들인다.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땅에 씨를 뿌려야한다.

그 후 씨에서 열매가 나오면 이를 수확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로 만든다. 이렇게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려면 인간은 땀을 흘려야한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음식물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곧 인간의 노력과 수고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Como también David habla de la bienaventuranza del hombre a quien Dios atribuye justicia sin obras,

백퍼센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천주교 신부들 그 보면 거의 고행인 수준이에요 고행수준

신부 수업 받는데 보면은요,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더러운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등을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 고행을 해요

너무나 타이트하게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해야지 만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 라는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터무니없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런 말씀을 봐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백퍼센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구원 이후의 생활도 백퍼센트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광야 생활엔 만났으며, 만나였으며 우리시대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상징 한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Porque de su plenitud tomamos todos, y gracia sobre gracia.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Y te afligió, y te hizo tener hambre, y te sustentó con maná, comida que no conocías tú, ni tus padres la habían conocido, para hacerte saber que no sólo de pan vivirá el hombre, mas de todo lo que sale de la boca de Jehová vivirá el hombre.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몸속에서 태어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El respondió y dijo: Escrito está: No sólo de pan vivirá el hombre, sino de toda palabra que sale de la boca de Dios.

사람이, 짐승말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육신의 것만 취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매일 매일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5번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킬 것, 영혼 구원과 안식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Por tanto, queda un reposo para el pueblo de Dios.

(10)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Porque el que ha entrado en su reposo, también ha reposado de sus obras, como Dios de las suyas.

그렇죠?

6일째는 이틀 분을 거둬들이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거 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않는, 않는 사람들은 쳐 죽인다는 의미가 그게 그것 깨달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쵸?

자기를 쉬는 거거든요?

나, 내 일은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놨어요

인제 나는 죽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내 일을 쉬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왜? 그 전날 두 배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어떤 참고서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주일과 연결 시켜 놨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건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거든요

마,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La paz os dejo, mi paz os doy; yo no os la doy como el mundo la da. No se turbe vuestro corazón, ni tenga miedo.

2번

모든 성도가 평균케 되길 원하신다

욕심을 버려라

날마다 먹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은혜는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다 은혜는 동일하게 주셔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다르죠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Y los hijos de Israel lo hicieron así; y recogieron unos más, otros menos;

(18)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y lo medían por gomer, y no sobró al que había recogido mucho, ni faltó al que había recogido poco; cada uno recogió conforme a lo que había de comer.

아까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매일 매일 은혜는 동일하게 주셔요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베푸셨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No os afanéis, pues, diciendo: ¿Qué comeremos, o qué beberemos, o qué vestiremos?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Porque los gentiles buscan todas estas cosas; pero vuestro Padre celestial sabe que tenéis necesidad de todas estas cosas.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Mas buscad primeramente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y todas estas cosas os serán añadidas.

이 말씀 하나만 행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 참 잘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 말씀이?

행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배우는거야 뭐 쉽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주시는데 어떤 분, 실지로 어떤 분들 뵈면은요, 재물에 대해서는 초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지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적절히 주시는 거거든요

4번 말씀을 불신하며 자기를 위해 육신의 것을 준비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을 어기면 사망하는 거 죽는다는 그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6일째 이틀 분을 거두고 그 다음날을 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허탕만 쳤잖아요 그쵸?

그 이상 거두면은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되새겨볼 만한 그런 내용 같아요

육신의 것은 과해도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번 보면, 그런데 그것도 참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거 많으면요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 개는 배부르면 안 먹는데...

개는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더 먹잖아요

그런거 보면 그것부터가 시험이에요 시험 그쵸?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두라했죠

칼을 두라

물론 이제 그 의미가 다른데 있지만.

재물에 대한 것이지만.

그 우리도 좀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을 거 앞에 두고 절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신의 것을 눈에 보고도 절제 할 수 있다면 참 좋다 싶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 부자,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Pero Dios le dijo: Necio, esta noche vienen a pedirte tu alma; y lo que has provisto, ¿de quién será?

(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Así es el que hace para sí tesoro, y no es rico para con Dios.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육신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은 뭐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거잖아요 영적인 은혜거든요?

그게 현명한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A los ricos de este siglo manda que no sean altivos, ni pongan la esperanza en las riquezas, las cuales son inciertas, sino en el Dios vivo, que nos da todas las cosas en abundancia para que las disfrutemos.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모자라는 듯 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생활면에 보면은요 너무나 없으면 힘들겠지만 약간 모자라는 게 그게 신앙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유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좀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위해 쓰는 분들도 계

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쓸 줄 아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실 것 같아요 돈을

그렇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많으면은 반드시 실족할 염려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멀쩡하던 집안이 갑자기 돈 생기면은 쑥대밭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7형제 8형제가 있다가 돈 없을 때는 잘먹고 잘 살아요. 서로 도와가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유산이 있어요 50억이야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거 보면은 약간 모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번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지나면 은혜를 거두실 것을 교훈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16장 21절에

(출16:21)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Y lo recogían cada mañana, cada uno según lo que había de comer; y luego que el sol calentaba, se derretía.

아침 해가 내리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 하듯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 졌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He aquí, llamarás a gente que no conociste, y gentes que no te conocieron correrán a ti, por causa de Jehová tu Dios, y del Santo de Israel que te ha honrado.

그 기회를 놓치면은 없다는 거잖아요?

맨 끝에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Todo tiene su tiempo, y todo lo que se quiere debajo del cielo tiene su hora.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가기 전까지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요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공부하면서 한 번 고민해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전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보잘 것 없는 능력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께만 간구 드립니다.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행여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 거리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더욱더 깨끗케 해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계획 된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